



2025년 시카고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활동 정리 및 회고

2025년 한 해 동안 시카고지역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작한 회장 임무를 총회 및 연말 파티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부족했던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해 내내 함께 애써 주신 이동균(공대 75) 수석부회장, 이준수(공대 76)·김훈태(사회대 84) 부회장, 이태호(공대 87) 재무, 봉윤식(사회대 96) 총무, 한재은(의대 59)·김수현(생활대 98) 감사, 황찬주(인문대 84)·이소정(음대 84) 특별간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홍청일(약대 57), 소진문(치대 58) 동문께서는 거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함께하시며 멋진 사진 기록을 남겨 주셨습니다. 동창회의 역사이자,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따뜻한 추억을 선물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 진행된 주요 행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올 한해 활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웹사이트 개편: 기존에 김호범(상대 69) 동문이 토대를 마련한 웹사이트를 2025년부터 황찬주 동문이 웹마스터로 맡아 형식과 UI를 정비하고, 소식을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더 많은 회원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제 1차 이사회 (3/29, Schaumburg Golf Club Chandler's Banquet): 전체 이사 79명 중 참석·위임 52명으로 정족수 확인 후 개회.

신임 이사(2025-2027) 인준, 2025년 행사계획(연 2회 이사회; 야유회; 춘·추계 골프대회, 연말 총회 및 파티 포함) 승인,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인준,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장학생선발위원회, 차차기 회장 선발위원회 신임 위원 선임·인준

야유회 (5/31, Busse Woods), 사진 신청 109명, 준비된 도시락 150개가 모두 소진될 만큼 많은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성황이었습니다. 교가 제창, 단체사진, 레크리에이션("다함께 차차차" 율동, 빙고 게임)으로 세대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춘·추계 골프대회 (6/14, 9/06, Hilldale GC),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며 선배들의 노련함과 후배들의 쾌기가 어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샷을 응원하고 기록하며 끈끈한 동문애를 나눴습니다.

가을 음악회 및 제 2차 이사회 (10/12, 시카고 한인문화원), 이소정 동문기획으로 김수경·하동완·주혜진·이충호 동문이 바흐·베토벤·쇼팽·리스트·라벨의 명곡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직후 열린 제 2차 이사회에서는, 제 1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인준, 2025년 예산 집행내역 공유·인준, 장학사업 경과 보고, 윤봉수(간호대 69) 동문을 차차기 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장학생 선발 (접수 마감 9/05, 수여식 12/07), 1986년에 시작된 장학사업은 시카고지역 동창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12명(1인당 \$3,000)을 선발·집행했습니다. 지속적인 기부와 장학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의일, 공대 62)의 안정적인 운용 덕분에 매년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부 동문과 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회 및 연말 파티 (12/07, Schaumburg Golf Club Chandler's Banquet), 동문 및 가족 98명이 참석했습니다.

1부: 교가 제창, 고인이 되신 동문 추모 묵념, 사업·재무·감사·장학기금 관리 보고, 장학생 12명 장학증서 수여, 이동균 차기 회장 인사 및 임원진 소개, 윤봉수 차차기 회장 인준, 산하 동아리·기관 활동 공유

2부: 저녁식사와 연주, 황찬주 동문 주도로 한국 가요와 함께하는 댄스 등 즐거운 여흥

뉴스레터 발간: 이준수 부회장이 각 행사 주요 내용과 사진을 정리해 이메일로 배포하여 소식을 공유하며 참여 저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동아리 및 연관 기관: 음악·북클럽·스와재 등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했고, 세종문화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과의 협력은 동포사회의 핵심 중심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동창회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골든클럽(회장 안창혁, 사대 65), 관악클럽(회장 김수현, 생활대 98)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든클럽은 매월 첫째 목요일 정기모임과 다양한 주제의 정기 세미나, 장·단기 여행 프로그램을 이어갔고, 관악클럽은 자녀 동반 볼링·스크린골프 등으로 친교를 다졌습니다.

맺음말: 우리는 전공과 세대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올해의 만남과 나눔이 내년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6년에는 이동균 회장과 새 임원진의 리더십 아래, 특히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걸어주신 모든 동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연말에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클럽 2025년을 마치며

2024년도 골든클럽 부회장직을 마치고 2025년도 회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 시카고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사정도 잘 모르는 제가 과연 골든클럽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염려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엇그제 같은 출발이 벌써 1년이 지나, 12월 4일 Holiday Luncheon을 끝으로 회장직을 차기 회장 전현일 동문(농 62)께 인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 한 해 함께 수고해 주신 임원진—심태식 부회장(문 69), 이병주 총무(상 74), 지옥희 재무(간 69), 김영원 섭외(사 67)—모두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도 차기 회장을 맡기를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골든클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 주신 전현일 동문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목표와 성과

회장직을 시작하며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70-78 학번 동문들의 적극적 참여 확대: 일부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이병주(상 74) 동문이 임원직을 수락했고, 이진홍(공 75) 동문이 7월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수의 70-78 학번 동문들이 4박 5일 콜로라도 여행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많은 70-78 학번 동문들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 활성화: 올해는 월례회 장소, BBQ Garden, 의 좋은 Audiovisual System 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우 풍성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1월: 이병주(상 74), “은퇴 후 성공적인 투자 방법”
 - 2월: 이진정(공 69), “남극 기행과 탐험 이야기”
 - 3월: 장기남(문 62)·안창혁(사 65), “근사 체형: 이론과 간증”
 - 4월: 김동희(공 66), “추사의 세한도”
 - 5월: 김영원(사 67), “Is AI a Blessing or a Curse?”
 - 7월: 이진홍(공 75),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 8월: 이영우(문 66), “베토벤의 교향곡”
 - 9월: 연경자(약 65), “마리화나가 두뇌에 미치는 영향”
 - 10월: 윤봉수(간 69), “강릉이 낳은 이조 중기 두 여류 문예인의 이야기”
- 모든 세미나가 유익하고 다양하여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회원 연령을 고려한 장·단기 여행 기획: 연로해지는 회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Short Trip 은 시카고 다운타운 1일 관광으로 진행했고, 52명이 참석했습니다. Long Trip 은 덴버 한 호텔에 머물며 4박 5일 동안 록키 마운틴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았으며, 48명의 동문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 배우자(Spouse)의 적극적 참여 및 회비 납부 독: 골든클럽 회원과 Spouse 들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 및 회비 납부를 권장해서 올해는 총 134명의 회원 및 배우자가 회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회비는 주로 Short Trip 과 Holiday Luncheon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도 월례회와 Holiday Luncheon

올해 월례회는 매회 65-85명이 참석하여 식사와 친교, 그리고 유익한 세미나로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월 4일 Holiday Luncheon 은 월례회 장소인 BBQ Garden 에서 열렸으며, 총 104명이 참석했습니다.

풍성한 한식 식사를 즐긴 뒤 임원진이 준비한 디저트·포도주·커피·스낵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후에는 새 임원진 소개가 있었고, 이어 임원들이 합동으로 춤과 노래를 선보여 파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박광덕(음 61) 동문의 장, 연경자(약 65) 동문의 빙고 게임, 이병주(상 74) 동문의 닌센스 퀴즈, 안창혁(사 65) 동문의 사진 맞추기, 심태식(문 69) 동문의 장기자랑 인도 등 풍성한 여흥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김용환(공 71), 한의일(공 62) 부부, 심태식(문 69) 부부의 노래, 김승주(간 69) 동문의 섹스폰 연주 후 참석자 전원이 함께 **“나의 살던 고향은”**을 합창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04명이 함께 단체사진을 소진문(치 58) 동문이 찍으며 2025년도 골든클럽 활동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에 대한 기대: 2026년에는 전현일 회장님과 새로운 임원진의 리더십 아래,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속에서 골든클럽이 더욱 화기애애하고 유익한 공동체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골든클럽 회장 안창혁 (사 65)

2023 - 2025 선출 이사 :

구경희(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용환(공),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훈태(사회), 박영규(농),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신석균(문), 안창혁(사), 왕진한(공), 유희두(사),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영우(문), 이정숙(간), 이창호(공), 장윤일(공), 지우영(공),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찬주(인문), 황치룡(문),

2024 - 2026 선출 이사 :

강영국(수), 곽영로(수), 김선웅(공), 김승주(간), 김영호(의), 김용주(공), 김정주(문), 김준우(의), 김학수(공), 김현희(간), 노영일(의), 박영준(문), 박장열(공), 유기정(간), 이승자(사),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형원(약),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의일(공), 홍승우(사회), 홍청일(약),

2025 - 2027 선출 이사 :

김사직(상), 김수현(생), 김연화(음), 김영준(문), 김용성(상), 김윤태(의), 김호범(상), 문병훈(사),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소진문(치), 신순천(원), 연경자(약), 이경미(미), 이종균(공), 이성우(농), 이용락(공), 이정일(농), 장영수(공), 정호(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중행(의), 한경진(상), 한재은(의),

2025년도 임원진: 회장 정성일(공대 86), 수석부회장 이도균(공대 75), 부회장 이준수(공대 76), 김훈태(사회 84), 총무 봉윤식(사회대 96) 재무 이태호(공대 87), 섭외/홍보 황찬주(인문대 84), News Letter 이준수(공대 76), 봉윤식(사회 96) Web Master 김수현(생활대 98), 황찬주(인문대 84), 골프 소진문(치대 58), 김훈태(사회 84), 사진 김수현(생활대 98), 홍청일(약대 57), 김동희(공대 66), 소진문(치대 58) 특별간사 황찬주(인문대 84), 이소정(음대 84), 감사 한재은(의대 59), 김수현(생활대 98), 동아리모임 음악: 이영우(문리대 66), 댄스: 황찬주(인문대 84), 독서: 박종희(의대 69), 수영: 김동엽(사대 86), 고문 역대회장

프롬프트 리더십: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소통하기: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 현장에서 느낀 것은 '모호한 지시는 반드시 실패를 불러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능한 팀원에게 "그 일 좀 잘 알아봐 줘"라고 말하는 리더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 이사회 보고를 위해 A사의 시장 점유율 3년 치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 줘"라고 말하죠. 인공지능 Gemini를 다룰 때도 이 원칙은 정확히 적용됩니다. 많은 이들이 AI를 검색창처럼 사용하며 "미국 보험에 대해 알려줘"와 같이 막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는 리더의 언어가 아닙니다. AI는 우리가 입력한 정보의 양과 질에 비례해서 답을 내놓는 정직한 거울과 같습니다.

명확한 소통을 위한 '3 단계 지시법':

Gemini라는 똑똑한 비서에게 최상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문장에 담아야 합니다.

역할(Role) 부여: "너는 꼼꼼한 자산 관리 비서야." (AI에게 전문적인 태도를 설정해 줍니다.); **배경(Context) 설명:** "내가 이번에 미국 관공서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영어가 생소해서 핵심만 알고 싶어." (상황을 공유하여 답변의 과녁을 좁혀줍니다.); **형식(Format) 지정:** "내용을 3가지 포인트로 요약하고,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려줘." (결과물의 구조를 리더가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롬프트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언어를 구사할 때, AI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 우리의 사고를 확장해 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결과의 수준임을 기억하십시오.

Case I: 정부 및 관공서 공문서(Official Documents) 판: DMV(차량국)나 IRS(국세청)에서 온 서류는 용어가 어렵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이때 Gemini를 '법무 행정 비서'로 활용하십시오.

[실전 프롬프트] "너는 미국 행정 절차에 능통한 법무 비서야. 첨부한 사진(또는 복사한 텍스트)을 분석해서 다음을 알려줘. 1) 이 서류를 발송한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문서의 목적, 2)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가?, 3) 최종 마감 기한(Deadline) 언제인가?, 4) 당장 내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Case II: 광고물(Junk Mail)과 사기(Scam) 판별: "최종 경고(Final Notice)"나 "무료 당첨"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포장된 광고물을 걸러내는 법입니다.

[실전 프롬프트] "너는 소비자 보호 전문 분석가야. 이 우편물은 'Official Business'라고 적혀 있지만 광고 같아 보여. 이 문서가 실제 정부 기관의 고지서인지, 아니면 상업적 광고물(Scam 포함)인지 판단해 줘. 만약 무시해도 되는 광고라면 그 이유도 짧게 설명해 줘."

Case II: 커뮤니티 통지서(Community Notice) 확인: 도로 공사, 쓰레기 수거일 변경, 혹은 수도 점검 등 일상에 밀접한 통지서입니다.

[실전 프롬프트] "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야. 우리 동네 반사회에서 온 이 공지문을 읽고, 나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정보(예: 주차 금지, 단수 시간 등)가 있는지 요약해 줘. 날짜와 시간 위주로 명확하게 알려줘."

Case III: 병원 방문 전, 증상 설명 및 질문 리스트 준비:

의사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내 상황을 정리하여 의사에게 전달할 '브리핑 노트'를 만듭니다.

[실전 프롬프트] "너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문 의료 통역사야. 내가 내일 병원에 가는데, 요즘 '왼쪽 무릎이 계단을 내려갈 때만 시큰거리고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어. 의사에게 이 상황을 정확하고 전문적인 영어 문장으로 전달해 줘.

내가 의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부작용'이나 '추후 치료 일정'에 관한 질문 5가지를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해 줘."

Case IV: 처방전(Prescription)과 복용 지도 확인:

약국에서 받은 약 설명서가 너무 길어 핵심을 놓치기 쉬울 때입니다. **[실전 프롬프트]** "너는 세심한 약사야. 이 처방 약의 설명서를 분석해서 복용 시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 줘."

Case V: 처방전(Prescription)과 복용 지도 확인: 약국에서 받은 약 설명서가 너무 길어 핵심을 놓치기 쉬울 때입니다. **[실전 프롬프트]** "너는 세심한 약사야. 이 처방 약의 설명서를 분석해서 복용 시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어르신에게 쉽게 핵심만 요약해 줘."

(출처: 이준수, 『AI 전략』 제 1권 「프롬프트 리더십」, 내용 요약)

2025 임원회/이사회/총회 행사		산하기관 및 동아리 행사
1 월	24 일(금) 12:00 ~ 인수인계 (Bank Account Transfer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든클럽(안창혁) 관악클럽(김수현) 음악동우회(이영우) 수영 (김동엽) 스와재 (황찬주) 낙시 (김동엽) 산행 (봉윤식) 북클럽 (박종희) 시카고 동창회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및 주소 변경 등록 
2 월	28 일(금) 위임장(Proxy) 송부 - 이사 위임장 및 회비	
3 월	16 일(일) 17:00 ~ 2 차 실행임원회의 (이사회 준비) 29 일(토) 13:00 ~ 1 차 이사회, @ Chandler's (Schaumburg Golf)	
5 월	18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야유회 준비) 31 일(토) 11:30 ~ 야유회 - Busse Woods #32 (예약 완료)	
6 월	08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14 일(토) 12:00 ~ 춘계 골프대회 (Hilldale GC) (예약완료) 20-22 일: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회의 - St Paul Hotel, Minnesota	
7 월	11 일(금) 장학생 선발 공시	
8 월	30 일(토) 장학생 접수 마감 14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9 월	06 일(토) 12:00 추계 골프대회(Hilldale GC) 21 일(일) 장학생 선발위원 모임 및 선발완료	
10 월	12(일) 16:00 ~ 가을음악회/2 차 이사회 - 한인 문화원 비스코 홀	
11 월	30 일(일) ~ 실행임원회의 (총회 준비)	
12 월	7 일(일) 15:00 ~ 총회, 장학금 수여식, 송년파티 - At Chandler's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이사회비 납부 (60 명: \$15,000)

강영국(수), 구경희(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사직(상), 김수현(생), 김승주(간), 김영호(의),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정주(문), 김학수(문), 김현희(간), 김호범(상), 김훈태(사회), 노영일(의),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박영준(문), 박장열(공),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소진문(치), 신석균(문), 신순천(원), 안창혁(사), 연경자(약), 왕진한(공), 유기정(간),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동균(공),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장윤일(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중행(의), 지우영(공),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경진(상), 한의일(공), 한재은(의), 홍청일(약),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치룡(문), 황찬주(인문)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동창회비 납부 (82 명: \$4,100)

강영국(수), 구경희(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사직(상), 김수현(생), 김승주(간), 김연화(음), 김영용(간), 김영원(사), 김영호(의), 김옥자(간),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정은(음), 김정수(문), 김정주(문), 김학수(문), 김현희(간), 김호범(상), 김훈태(사회), 노영일(의),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명기(농), 박 숙(의), 박연희(보), 박영준(문), 박장열(공), 박정일(의), 박종희(의),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소진문(치), 신석균(문), 신순천(원), 안창혁(사), 연경자(약), 왕진한(공), 원인숙(간), 유기정(간), 윤덕상(치),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건홍(공), 이동균(공), 이영섭(수), 이영우(문), 이애자(약), 이소정(음), 이소희(간),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장기남(문), 장윤일(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정해일(상), 제환수(사),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중행(의), 지우영(공), 지옥희(간),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경진(상), 한의일(공), 한재은(의), 허서룡(의), 홍청일(약),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치룡(문), 황찬주(인문)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일반경비 및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4,300): 구경희(\$1,000), 김윤태(\$300), 박창만 (\$1,000), 유기천 재단(\$1,000), 한의일 (\$1,000)
일반경비 지원 (\$9,550): 김연화(\$450), 김승자 (\$200), 김윤하(\$200), 김정수(\$200), 김정은(\$150), 박정일(\$100), 안창혁(\$1,000), 윤덕상(\$200), 윤봉수(\$200), 장윤일 (\$2,000), 정승규(\$500), 제환수(\$50), 조규승(\$2,000), 지우영(\$1,000), 허서룡(\$50), 한경진(\$1,000), 황찬주(\$250)

2025년 부고: 정연학 (공 63E), 최의필 (의 53E), 이계형 (공 52 졸업), 김건 (문 63E), 강수상 (의대 48E), 양승표 (문리대 57E), 강영국 (수의 67E), 강화영(문리대 50E), 김영용 (간 66E), 변용국 (미 81E)